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담당 부서 해양친수과	배포일자	2022년 10월 28일(금) 총 2매	
	담당자	• 친수공간계획팀장 이애경 ☎458-7161 • 담당자 곽성호 ☎458-716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석모도 칠면초 해안길조성 박차

-11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내년 하반기 사업완료 목표 -

- 해양생태계 보존 · 관광객 유치 두 마리 다 잡는다 -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석모도 칠면초 해안길」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2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한 조성 사업은 11월까지 간이해역이용 협의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3년 초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화군 삼산면 석포리 일대는 가을이면 갯벌이 붉은색으로 물들어 보일 정도로 ‘칠면초’가 군락을 이루어 자생하고 있어 시민에게 아름다운장관을 제공하고 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증가 추세에 맞춰 칠면초 군락지, 녹지공간, 포토존 등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을 조성해 해양생태계 보존과 관광객 유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석모도의 칠면조 군락지는 2020년도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가을철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뽑힐 정도로 해양경관이 뛰어난 곳” 이라면서 “사업이 완료된 후 더 많은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칠면조 군락지의 장관을 경험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4월 시민의 친수공간 접근성 개선과 해안을 연결하는 수변공간 확대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단기, 중·장기 39개 신규사업이 포함된 ‘2030 바다이음, 인천 해양친수도 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붙임> 석모도 칠면조 해안길 조성사업 대상지 전경사진

